

尹 挹 先 生 故 宅

한옥 디자인의 교과서,

윤증선생 고택

글_사진_ 한필원 (한남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좋은 집이란 무엇인가?

구조물과 공간이 삶의 지향과 논리를 미학적으로 구현하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좋은 집이 아닐지?

그러나, 언제나 언어로 표현하는 것은 어렵다. 좋은 집의 모습을 한 번 보는 것이 나을 듯하다.

윤증선생 고택은 명재(明齋) 윤증선생(1629~1711)이 18세기초에 건립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집이 지어질 당시는 우리 사회 전반에 성리

학적 사고가 이미 확고하게 자리잡은 시기이다. 따라서 이 한옥을 둘러보며 당시 성리학자들의 주거관을 더듬어보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겠다.

윤증선생 고택은 충남 논산시 노성면 교촌리에 자리잡고 있다. 파평 윤씨의 세거지인 노성면은 회덕지역과 함께 당시 정치사상계의 실세들

이 뿌리내리고 있던 본거지이었다. 윤증선생 고택의 바로 서쪽에 노성향교가 있기 때문에 동네 이름이 교촌리이다. 이 한옥이 자리잡은 곳은

예사롭지 않다. 한옥의 좌우에는 윤증선생이 평생 사모해마지 않았을 공자를 위시한 선현들이 모셔져 있고 전면에는 선생의 가슴에 한으로

새겨졌을 모친의 정려각이 있기 때문이다. 선생의 모친은 호란 중에 자결하여 정조를 지켰다.

한옥의 서쪽에는 노성향교가 있는데, 본래 지금의 노성초등학교 자리에 있던 것을 1700년경에 이곳으로 이전하였다. 향교란 다 알다시피

공자를 모시면서 지방의 젊은이들을 교육하던 관립학교이다. 윤증선생은 이 노성향교에서 지방유림들과 교유하였을 것이다. 한편, 한옥의 동

쪽 꼴짜기에는 노성궐리사가 있다. 궐리사(闕里祠)란 공자의 영정을 봉안한 영당을 일컫는다. 노성궐리사는 현 위치에서 서쪽으로 있는 노성

산 아래에 있던 것을 1805년에 이 자리로 이전한 것이라 한다. 당시 19세기초는 소론파가 정치적 주도권을 주게 된 시점이다. 궐리사는 이곳

과 수원(화성궐리사) 두 곳에만 남아 있다. 한옥의 남쪽 앞에는 인공적으로 조성된 소나무 숲의 안산이 있고 이곳에는 윤증선생 모친의 정려

각이 건립되어 있다. 이처럼 윤증선생 고택을 둘러싸는 곳에 의미심장한 시설들이 선생의 생전 그리고 사후에 조성됨에 따라서 이 한옥이 위

치한 장소는 강력한 성리학적 분위기를 갖추고 지역사회의 중심으로 자리잡게 된다.

● 원경

윤증선생 고택은 부드럽게 내려오는 산자락 끝에 기대어 자리잡았다. 사진 가운데, 사랑채의 뒷에는 너른 마당을 두고 있다. 자연 원편, 인체의 전면을 막고 있는 안행랑체는 산수유니무에 가리어 보이지 않는다. 사랑채 뒤로 멀리 사당이 보인다.



윤증선생 고택은 뒤의 주산에 의지하고, 지형을 잘 살펴서 아늑한 장소에 배치되었다. 이 한옥은 안채와 사랑채를 중심으로, 곳간채, 안행랑채, 사당 등으로 구성된다. 한옥에 가까워지면서 눈에 먼저 들어오는 것이 앞에 너른 마당을 가진 사랑채이다. 그 오른편 뒤로 사당이 드러나고, 왼편 뒤쪽으로는 안채가 숨어 있다.

윤증선생 고택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안채와 사랑채를 여러 측면에서 대비적으로 구성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안채와 사랑채를 별채로 구성한 한옥이 우리에게 익숙한데, 일반적으로 짐작하는 것과는 달리, 이런 주택 구성방식은 아주 오래 전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 조선 중기에 성리학적 사고가 확고히 자리잡으면서 비로소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 중기에 이르면, 개방적이고, 외향적이며 원심적이고, 수직적으로 구성되는 남성의 공간인 사랑채영역과, 폐쇄적이고, 내향적이며 구심적이고, 수평적으로 구성되는 여성의 공간인 안채영역이 생활공간의 핵심을 이루게 된다.

윤증선생 고택의 사랑채는 마을을 향해서 열려 있다. 밖으로 자신감 있게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 사랑채는 한 가족만의 생활공간을 넘어서 마을이라는 공동체로 열린 공간이다. 사랑채 건물을 좀더 분석해보자. 사랑채는 두 단의 높은 기단 위에 있다. 뒤에서부터 낮아지는 지형의 차이를 활용하여 기단부를 수직적으로 구성한 것이다. 벽체는 전면에서 볼 때 네 칸으로 되어 있는데 가운데 두 칸은 사랑방, 그러니까 온돌방으로 막혀있고 양측의 한 칸씩은 누마루 그리고 대청으로 비워져 있다. 누마루는 높이 들어올린 마루를 말하는 데, 격식을 갖춘 한옥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누마루는 전면의 연못을 조망하거나 앞의 경관을 감상하는, 기분좋게 시야가 열리는 장소이다. 사진에서는 누마루의 창문이 닫혀있지만 이것을 열어서 들어올려 매달면 이 모퉁이 칸은 완전히 개방된다. 여기서 허와 실의

● 사랑채 전경

두 단으로 구성된 높은 기단 위에 지어진 사랑채, 팔작지붕을 얹은 단정하고 완결적인 모습이다. 전면 4칸의 규모로, 중앙의 두 칸은 온돌방이며, 양측의 각 한 칸은 마루이다. 왼쪽 한 칸은 누마루로 전면의 들어열대문을 완전히 개방하면 건물의 모퉁이가 비어있게 되어 경쾌한 느낌을 준다.

대비적인 구성을 볼 수 있다. 한옥은 독특하게도 온돌과 마루를 한 채 내에 가지고 있는데, 이 두 요소를 잘 결합하여 구성함으로써 여러 가지 미학의 원리들을 나타내고 있다.

사랑채의 지붕은 팔작지붕이다. 옆에서 보면 삼각형 모양의 합각이 있는 지붕이 팔작지붕이라고 한다. 팔작지붕은 위계가 높은 건물에 많이 쓰였다. 팔작지붕은 형태적으로 단정하고 완결적이다. 전통 건물들을 보면 비례적으로 지붕의 비중이 크고 육중해 보인다. 실제로 지붕의 무게는 대단했다. 그래서 그 지붕을 구조적으로 또 미적으로 어떻게 지지하는가 하는 것이 전통 건축의 큰 과제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윤증선생 고택의 사랑채에서 그런 문제를 아주 출중하게 해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모퉁이를 비운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육중한 지붕이 부유하는 듯하다. 지붕의 처마 곡선이 휘어 올라간 것도 그러한 느낌에 도움을 준다. 비움으로써 무거운 것이 가벼워 보인다? 대단히 역설적이고 형 이상학적인 미학이다. 무둔한 건축가 같으면 '어이구 이거 무거운데 모퉁이를 잘 밟쳐야지' 하고 모퉁이를 채웠을 터인데… 그랬더라면 이 건물이 얼마나 둔해 보였을까?

윤증선생 고택의 여러 곳에서 치밀한 디자인과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발견된다. 그 중의 하나가 바로 사랑방과 골방 사이에 있는 안고지기 곧 미닫이 여닫이이다. 미닫이로 열고 다시 문틀과 문짝이 맞물린 상태로 여닫이로 열리는 문. 참 대단한 아이디어이다. 안채에서 준비된 음식 등을 골방을 통해서 큰방으로 옮기려면 드나드는 문이 넓어야 하므로 이 같은 특특한 고안을 하여 방 사이의 칸막이를 완전히 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문은 문지방이 문짝과 같이 여닫혀야 하므로 세부처리가 정교하게 되어야 하는데, 오늘날 건축 디자인의 관점에서 보아도 그 아이디어가 돌보인다.



● 중간영역

사랑채의 측면과 안행랑채의 전면이 만들어내는 외부공간, 서로 성격이 다른 안채와 사랑채를 적절히 나누어주며 연결도 해주는 아른바 중간영역이다.



1



2



3

전통 한옥은 남성의 공간과 여성의 공간을 대비적으로 조성하여 외관상 분리하면서도 동선 상으로는 은밀하고 미묘하게 연결하는 것이 특징이다. 조선시대 중기 이후의 한옥은 남녀의 성, 세대, 신분에 따라 여러 채 또는 영역들로 나뉘지만, 결국 한 가족의 생활을 담아내야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눈에 띄지 않게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되고 있다. 특히, 남성의 영역인 사랑채에서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영역인 안채로부터 음식을 서비스 받아야 했으므로 두 영역은 골방, 뒷마루 등을 통하여 슬쩍 연결된다. 윤증선생 고택은, 형태상으로는 분리하여 형식미를 갖추면서도 실제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작은 마당과 골방 등 재미있는 공간요소를 사용해서 남성과 여성의 공간을 연결하고 있는 좋은 예이다.

사랑채 옆으로, 안채와 외부영역을 나누어주고 한편으로는 안채와 사랑채를 연결해주는 안행랑채가 있다. 외부에서 안행랑채까지 아름다운 돌계단을 타고 오른다. 사람의 발길을 자연스럽게 이끄는 길이다. 안행랑채까지 이르러도 그 뒤에 있는 안채는 드러나지 않는다. 안마당으로 들어가는 중문간에는 ‘내외벽’이라고 해서 가벽이 설치되어 있다. 개방적인 사랑채와 달리 내밀한 공간인 안채의 프라이버시를 위한 건축적 장치이다. 그런데, 재미있기도 내외벽의 아래부분이 뚫리어 있다. 안채에서는 그 개구부를 통해 방문자의 발을 봄으로써 인기척을 확인하고 옷매무새를 단정히 한 다음 손님을 맞았다고 한다.

중문간으로 오던 길을 돌아다보면 앞으로 안산(案山)에 해당하는 언덕이 보인다. 이 시각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 건축에서는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는 것보다 안에서 밖을 보는 시각이 중요시되었다. 그러니까 전통건축을 보러가서 밖에서만 열심히 보고 오면 반드시 못 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항상 안에서, 거주자의 주체적인 시각에서 어떻게 보이느냐, 무엇이 보이느냐를 중요시했던 것이다.

① 사랑채의 서측면

사랑채의 후면, 안행랑채의 측면, 그리고 안채의 뒷풀을 둘러싸는 담장이 함께 만들어내는 사랑채의 뒷마당을 통해서 안채와 사랑채는 은밀히 연결된다.

② 안고지기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보여주는 문 디자인, 사랑방과 골방 사이에 설치된 네 짹의 이 미닫이문을 모두 열면 두 공간이 하나가 된다.

③ 안채로 가는길

외부에서 돌계단을 통해 안행랑채의 중문간에 이른다.



4

안채로 들어가보자. 정방형에 가까운 안마당이 있고, 대칭적으로 구성된 □자형의 안채가 그것을 둘러싸고 있다. 안채는 경상도 지방에 있는 으리으리한 저택들과 견준다면 소박한 규모의 건물이다. 이것은 기술이나 경제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절제를 미덕으로 했던 당시 예학자의 지행합일의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명재(明齋)선생은 예학자로서 벼슬길에는 오르지 않았으나, 송시열계에 대항하는 소론파의 지도자이었다. 선생의 청렴결백함은 그의 일생을 적은 '명재언행록(明齋言行錄)'에서도 속속 보여진다. 그러나, 이 한옥은 어느 문헌기록보다도 더 직접적으로 윤증선생의 생활방식과 품격을 느끼게 한다. 정신적으로는 한없이 풍요로웠지만 물질적으로는 청빈했던 유학자의 삶이 전해오는 듯하다.

④ 안채

가운데의 네른 대청을 중심으로 대칭으로 구성된 □자형의 건물이 안마당을 둘러싸고 있다.

④ 중문간

중문간에 이르려도 내외벽으로 가려져 있어서 안채가 완전히 드러나지는 않는다. 지금의 내외벽은 본래보다 폭이 반 칸 준 것이라고 하니 이전에는 안채가 더욱 내밀하였을 것이다.



5

안채는 수직적인 사랑채에 비해 수평적이다. 높은 기단의 사랑채와 달리 낮은 기단에 앉았다. 수평성. 이것은 경상도의 사대부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충청지역의 고유한 특성이다. 이런 수평적인 조형은 일반적으로 비교적 평坦한 지형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자형 안채의 가운데 부분, 전면 다섯 칸은 대청이다. 깊이 방향을 계산하면 8칸 넓이이다. 주택의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는 생각도 듦다. 그러나, 너른 대청은 형식적으로 과장하려는 의도가 아닌 실용적인 이유로 말미암은 것이다. 대청은 안마당과 연결되어서 쓰이는 데, 기본적으로 제사를 지내는 공간이다. 대청이 너른 것은 그만큼 제사가 많았고 참여자가 많았다는 사실일 것이다.

예를 행하는 의례공간, 대청. 시원한 넓이를 가진 이 공간 너머로 뒷뜰의 장독대가 보인다. 대청에는 반자를 달지 않는다. 그래서 대들보가 노출되고 서까래 선이 보인다. 한옥의 아름다움은 바로 이런 선의 아름다움이라고 할 수도 있다. 보가 기둥에 비해 굵은 것도 시각적 과장을 위한 것이 아니다. 보가 두꺼워야 지붕의 무게를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구조역학적 지식이 있다면, 한옥이 구조적으로 합리적이었음을 알게 된다.



④ 대청

대들보와 서까래, 그리고 서까래를 받치는 부재인 도리 등이 노출되어 자연스런 구조미를 보여준다.

⑤ 대청에서 본 안채

낮은 안행랑채가 □자형의 안채 견물과 함께 밝지만 아늑한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다.

⑥ 며느리의 공간

전년방 뒤쪽에 조성된 좁고 긴 마당은 며느리의 공간이다. 마당의 끝에 단을 조성하고 삼어 놓은 매실나무가 시선을 이끌며 공간에 힘을 준다.

윤증선생 고택에서는 □자의 안채와 일자의 안행랑채가 흔히 틴 □자라고 불리는 형식을 만들었다. 안채의 앞을 안행랑채로 낮게 막아서 열린 곳을 허하지 않게 구성하였다. 마을로, 주변으로 발산하는 사랑마당과 달리 안마당은 중심으로 모여지는 구심성을 갖는다. 이 한옥의 안채는 수평적인 조형으로 차분하고 밝은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 넓을 넓고 안채의 대청에 앉아있다 보면 금새 해가 기운다. 그래도 여전히 빛은 대청까지 들어온다. 빛이 스러질수록 오히려 차분하고 안정적인 느낌이 더한다. 마치 꽉 끼지도 않고 너무 헐렁하지도 않은 잘 맞는 옷을 입었을 때의 느낌처럼 편안한 분위기를 느낀다. 건물을 구성하는 치수들이 내 몸의 크기와 친밀하게 연관되기 때문이다.

안채의 서쪽에는 안채와 공간이 형성한 마당이 있다. 정적이고 구심적인 안마당에 비해 세장하고 동적인 비례를 가진 뜰이다. 안채의 등측면에도 좁고 긴 마당이 조성되어 있다. 이러한 좁고 긴 마당들이 안채를 둘러싸고 있어서 정방형의 안마당은 더 돋보인다.

안채의 동측 후면에는 며느리의 거처인 건넌방과 연결되는 마당이 있다. 곧 며느리의 내밀한 외부공간인 것이다. 마당의 모양을 따라 눈을 돌리니 몇 개의 단을 높이 만들어 놓은 곳에 큰 매실나무 한 그루가 서있다. 단을 밟고 매실나무 아래로 가서 뒤꿈치를 들고 바깥세상을 엿보며 답답함을 달랬을 새댁의 모습이 연상된다. 바깥세상을 마음대로 드나들지 못했던 며느리의 적적한 마음에는 이 마당 위에 떠오르는 둥근 달이 얼마나 커 보였을 것인가.

한옥의 구성에서 사당은 가장 위계가 높은 공간이었다. 그래서 사당은 집터의 가장 높은 곳에 별도의 영역으로 자리잡고 있다. '주자가례(朱子家禮)'에 따라 정침. 그러니까 안채의 동측 후면에 사당을 두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예학자의 집인 윤증선생 고택은 당연히도 그 원칙을 따르고 있다. 선생은 매일 아침 사당에 문안을 드리는 것으로 일과를 시작했다고 전한다.

살펴본 바대로, 윤증선생 고택은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양반 주택으로서 전통한옥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전통적인 주택 디자인의 치밀한 방법과 풍부한 아이디어를 보여주는 교파서와 같은 건축이다. 다만, 이 글에서는 그 교파서의 내용을 다 담지 못했을 뿐이다.

한 가지 꼭 덧붙이고 싶은 것은, 윤증선생 고택이 오늘까지 그토록 정결하게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데는 그곳에 거주하는 두 분 종부의 덕이 있다는 사실이다. 필자가 여러 차례 방문한 이 한옥의 대청은 언제나 깔끔하게 치워져있었다. 그래서 그곳을 바라보는 것 만으로도 마음이 시원해졌다. 오늘날 이 아름다운 한옥이 건축의 역사와 디자인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훌륭한 교파서가 되고 있는 사실의 이면에는, 조상의 터전에 대한 고결한 자부심과 교육적인 배려까지 갖춘 두 분의 노력이 있음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한필원 교수 1961년생으로 서울대학교 건축학과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후 건축사로서 수년 동안 건축설계 실무를 하였으며, 중국의 청화(淸華)대학에서 연구학자로 연구활동을 하였다. 1998년부터 한남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지역의 주거건축에 대해 집중적인 연구를 하고 있다. 그의 연구와 설계 활동은 인터넷사이트 ATA(<http://ata.hannam.ac.kr>)에 소개되어 있다.